

2019 특별메세지 - 하나님의 사람 VII

하늘에 속한 사람, 깨어나다.

1.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은 '인식'의 과정이며 결과이다. 인식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일을 말한다. 모든 사람은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은 달라진다. 인식은 사물에게 가치와 존재가 되는 생명력을 준다.

(1) 인식의 전환 '바울'

[빌립보서 3:7-8]

7 나는 내게 이로왔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8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은 예전에 자신이 지니고 있던 것을 가치있게 여겼다. 7절에 인식의 전환, 즉 생각의 구조가 전환된다. 인식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지가 그래서 중요하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에 지속적인 영향력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일들은 세상에서 여전히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슨 차이인가? 신앙은 생각의 구조가 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인식'이 변한다. 그 인식 위에 모든 일은 의미있는 존재가 된다. 배설물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2) 아담

[창세기 2: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지는 피조물들을 보며 '이름'을 지어주게 했다. 그 과정이 바로 '인식'이다. 아담이 눈으로 보며 느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에 맞는 이름을 붙여준다. 이름은 아담의 인식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이름은 그 존재의 모든 것이다. 그 이름을 들으면 피조물의 모든 것이 생각나고 떠오른다. 무슨 말인가? 사람은 '인식'의 존재이다. 생각하는 존재이다.

2. 사람의 위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사람의 위치를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창세기 1:26-28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사람을 세우셨다. 만물 가장 위에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사람으로 인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일이 진행된다. 가장 높은 위치이다. 통치의 자리이다. 다스림의 자리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자리이다. 권한과 권위가 있는 자리이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인식의 과정은 중요했다.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에덴의 환경이 달라졌다.

사탄도 이와 같은 사람의 위치를 알았다. 만물을 다스릴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을 타락시킨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타락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탄의 전략은 아주 분명했다. 사람의 '생각'에 침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사탄은 사람의 생각에 침투해서 다른 생각으로 사람을 인식하게 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다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했다. 사람의 위치를 변경했다. 눈을 뜨게 했다. (이성, 종교, 과학 맹신주의 등) 하나님 없는 다른 차원의 세상에서 왕 노릇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했다. 결국, 생각이다. 생각과 인식의 변화가 진짜 신앙의 변화이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진짜 믿음이며 신앙이다.

3.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깨어나다.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나의 생각이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그 생각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정체성에 대한 것이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늘은 인간에게 있어서 경배의 대상이다. 소망의 장소이다. 영향을 받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정체성은 내가 어떤 하늘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세 종류의 하늘을 보여준다.

*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형태

ㄱ) 1층천 - 이에르 (스카이)

시간 세계의 하늘. 인간이 숨 쉬며 살 수 있는 하늘, 우리가 눈을 들어 보는 파란 하늘이다. 이곳 역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 가장 낮은 차원의 하늘이다.

ㄴ) 2층천 - 에프라니우스 (스페이스)

대기권을 더 벗어난 그 위쪽에 타락한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하늘이다. 바울이 언급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역의 하늘이다.

[에베소서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ㄷ) 3층천 - 우라노이스 (헤븐)

[고린도후서 12:1-2]

1 자라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 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2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 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피조물계를 초월한 영원한 하늘, 거기에는 타락된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존재하고 계신 가장 높은 하늘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안에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다. '바라봄'이 생각이다. 그 바라봄이 '믿음'이 된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어떤 하늘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4. 하늘과 땅, 그리고 나

(1) 하늘과 나

ㄱ) 첫째 하늘 : 자연인, 육의 사람, 보여지는 것이 중심.

ㄴ) 둘째 하늘 : 정사와 권세, 혼의 사람 (정신세계를 다스리는 사람들) 정신세계, 철학, 사상, 생각에 영향을 준다

ㄷ) 셋째 하늘 : 요한계시록 4-5장, 어린양의 통치, 왕의성품 (영의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세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셋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셋째 하늘에 누가 있는가? 왕의 통치가 있는 완전한 하늘이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즉, 이 땅에서도 '왕'의 신분을 얻은 왕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다.

(2) 왕의 기름부음 - 왕의 자격을 가진 자들을 세우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아는 것이다. 그 존재를 알고, 그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다. 그 때 나의 모든 것이 실재적으로 변화된다. 그 예가 다윗이다. 자신이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지만 진짜 왕의 사고방식은 아니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왕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한다.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이제 깨어나야 한다. 왕의 사고방식, 왕의 태도와 품격이 필요하다.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다. 정체성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깨닫는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진짜 왕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행하신 것이다. 혼과 힘의 세계관이 아닌,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완성하셨다. 하늘에 속한 사람.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자.

[베드로전서 2:9]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